

한국인 피아니스트 **임성현**은 동세대에서 가장 매혹적인 음악가 중 한 명으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모차르트하우스 콘체르트잘에서 유럽 데뷔를 한 이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파리 살 코르토, 메츠 아르세날, 브뤼셀 팔레 드 보자르, 그리고 라이프치히 MDR 방송 등 유수의 무대에서 연주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폴란드, 헝가리, 튀르키예, 중국,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독주회와 협연 무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성현은 2022년 이스탄불 Orchestra'Sion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였으며, 2023년 국제 프로 무지시스 상 (Pro Musicis Award)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ZF 뮤직 어워드, 제66회 비오티 국제 음악 콩쿠르, 2017년 모스크바 국제 피아노 오픈 콩쿠르, 2021년 클라모 뮤직 국제 피아노 콩쿠르, 2015년 로사리오 마르시아노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솔리스트로서 임성현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Ion Marin의 지휘로 모차르테움 대학교 심포니와 함께한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 (2022년 10월), 독일 남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윤한결 지휘자와의 라벨 'G장조 피아노 협주곡' (콘스탄츠 및 프리드리히스하펜, 2023년 4월), Orchestra'Sion 및 지휘자 Orçun Orçunsel와 모차르트 'C장조 제21번 피아노 협주곡' (이스탄불, 2022년 11월), 라이프치히에서 Matthias Foremny와 오케스터 데어 무지칼리셰 코뮤티와 협연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2024년 6월), 그리고 프랑스 엑상프로방스에서 Mariusz Smolij 및 Orchestra Giocoso와 함께한 쇼팽의 제1번 피아노 협주곡 (2024년 8월) 등을 연주하였습니다.

임성현은 서울대학교에서 아비람 라이헤르트 교수에게 사사하며 우등으로 학부를 졸업하였고,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대학교에서 자크 루비에 교수와 함께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라이프치히 국립음악대학교 (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Leipzig)에서 크리스티안 A. 폴 교수에게 사사하며 마이스터클라세 과정을 마쳤으며, 동 대학에서 조교로도 활동하였습니다.

그녀는 파울 굴다와 허은주를 중요한 멘토로 여기며, 파울 바두라-스코다, 메나헴 프레슬러, 아리에 바르디,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막심 벤게로프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음악적 지도를 받았습니다.

임성현은 교육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툴루즈와 함부르크에서 마스터클래스를 정기적으로 열고 MaiFestival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무지카 문디 페스티벌 (Musica Mundi Festival) 교수진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신 라이프치히 쇼팽 협회 (New Leipzig Chopin Society) 회원이자 2023/24 엘프룬 가브리엘 재단 장학금 수혜자로서 독일 전역에서 다양한 독주 무대를 가졌습니다.

현재 임성현은 라이프치히 국립음악대학교 (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Felix Mendelssohn Bartholdy« Leipzig)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